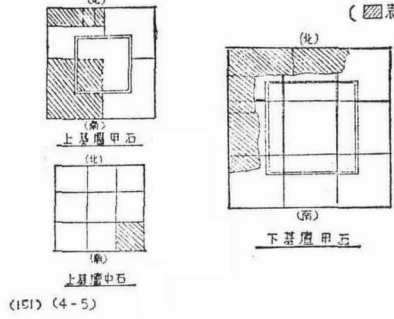


表石新原塔石層三址寺藏蓋

(圖表) 新石材



新石으로補充하였는데 그位置를 아래에明記하여後考에供하는바이다.

基壇部에서下基壇甲石中에屏風石이서있는以外의甲石이西端及西北端이 끊어져서外觀上 그두기가不美하여新石으로四個甲石을補充하였으며屏風石에東南隅石이缺失하여新石으로補充하였다. 다시上臺甲石에도破損石이西南隅石에一枚와西北隅石에一枚가 있어서更新하였음을 말하여둔다. 그리고上記한 바와같이露盤

及伏鉢은高仙寺址의 그것을模倣해서新石으로補充하였으나完全치는 못하였다.塔周圍는本來에流土로傾似面을 이루어 있으므로復原工事와同時에塔基壇一m幅으로平面整地하여流土防止에그쳤다.從來塔前에는石燈이있었는데石燈下臺石一個(完)가半以上地上에埋沒한것을整地한塔前左側에 놓았으며石燈蓋石이개울越便叢林에 묻힌것을塔前右側(南西)에運搬하였다.竿石과中臺石火舍石만있으면이것도復原시키는것이 좋을것같았다.

現塔의位置에서二段地上에는碑身이없는雙龜趺가前位置에있는듯한데碑座와螭首가分離해있는것을今次龜趺上에運搬하였다.螭首의一部分가破損流失되었으며龜部碑座四側에는前後에各四區左右側面에各二區의十二支像이있다.現在는風磨와雨洗로 또는靑苔로가득차서全貌가잘들어나지않고있다.

塔總高(地上에서)十六尺三寸(新造伏鉢及露盤包含)

露盤及伏鉢高 一尺二寸

下基壇甲石各廣幅 十尺六寸

方壺子の弼雲臺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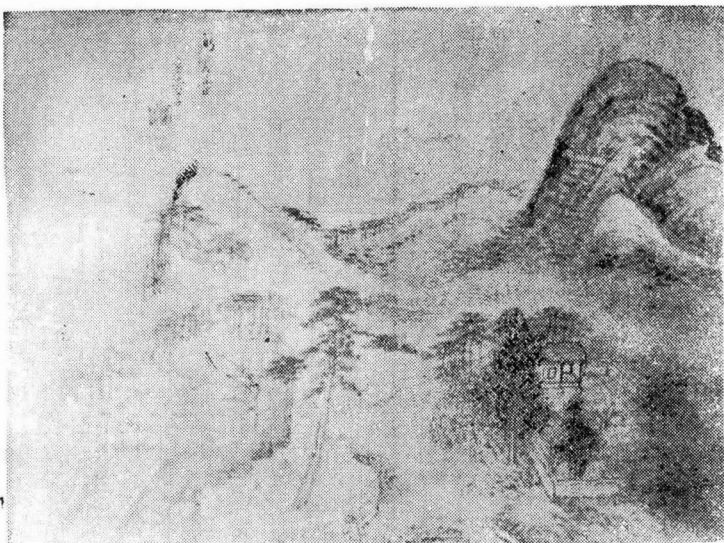
孟 仁 在

이弼雲臺의畫者는李朝後人으로만 짐작되고 있을 뿐 그本名이나在世에關한 일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의 그림에는一貫해서方子로만署名되어 있는 듯하며 그의本名을完全히 밝힌 그림은 아직 본 일이 없다.國立博物館이나高麗大學校博物館에 있는 몇幅의 그림은 모두 그리하며款印도 보기가 매우 어려운 듯하다. 이弼雲臺圖에는款印하나가 있으나 그의姓名을 알기에는不足한 것이며, 그姓氏를 모르는限이것으로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짐작할 수도 없다.

그런데日前에斯界의劉某先生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그의本名이張始興임을 밝힌 그림이 있을 뿐 아니라 그在世에 관한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일은 아직直接確認치 못한 것이므로 뒤로 미룬다.

二

弼雲臺를寫生한 그림은이미考古美術第一卷第五號에崔泳喜氏가『金吾詩帖』의謙齋畫、弼雲臺京師春色圖라는題名으로紹介한 일이 있다 이것은有名한鄭叡(一六七六—一七六九)의作品이며方壺子の것보다는 꽤 앞서는 것인데이兩者 사이에는 서로 틀리는點이 있다. 即謙齋의視點은北에 있고方壺子の視點은南쪽에 있는 것과謙齋의臺는方壺子の것보다一段 높고 따라서前者의人物들은 위에、後者の人物들은 아래岩盤에 있다는點이다. 視點은勿論自由이니까 보는 사람의느낌만 틀릴 뿐이나前者가 위를 後者가 아래를臺로서 그리고 있는 것은 하나의臺가 정말 어느 것인지 알 수 없게 한다. 이것은臺를 높은謙齋의畫面에서는高揚된 이미지를 그것을眼下에 낮추어擴大시킨 後者에서는一種의驚異를 느끼게 하는結果가 되게 한 듯하며 아울러 上下가



모두 臺로 通稱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
는 것 같다.

方壺子の 이 弼雲
臺圖는 三十二cm ×
四〇・五cm의 紙本

淡彩畫이며 畫面의
左上部에는 「弼雲臺
方壺子」라 墨書하고
그 밑에는 方印「聖
叔」一顆(陽文)를 찍
고 있다. 謙齊의 경
우보다는 布置가 크
며 冠岳과 反對로 北
岳과 北漢山이 보이
며 弼雲臺 杏花가 여
러 記錄에 남아 있을
만큼 有名했음에도
杏花같은 것은 그리
初夏의 新錄을 그리

지지 않고 淡靑草木만이 그려진 것으로 짐작하자면
러한 것 같다. 이 畫面과 合致되는 視點은 現梅洞國民學校前方(社稷壇
西北) 언덕이 가장 알맞는 듯하며 「弼雲臺」刻字는 (兩者 相互間의 臺上
臺下를 區分하는) 人物의 後壁에 있다.

三

弼雲臺의 位置는 現在 弼雲洞十番地이며 仁王山 東麓에 있는 培花女
高校 바로 뒤에 있는 同校官舍地에 該當한다. 官舍 뒷길 岩壁에는 約七尺
높이에 字徑 約二十六cm의 「弼雲臺」三字가 세로로 새겨져 있다. 이 刻
字는 英祖朝 都城圖에도 記錄되어 있다고 하며(京城府史), 東國輿地備
攷 名勝條에서도 「弼雲臺 在仁王山下 李白沙恒福 少時贅寓於臺下 權元帥

樞家 仍號曰弼雲 石壁所鐫弼雲臺三字 即李白沙筆 臺傍人家 多種花木故
京城人 春日看花 必先數此地」한다 하여 그것이 英祖朝 以前の 글씨인 同
時에 白沙李恒福의 글씨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漢京識略은 「今
石壁所鐫弼雲拾三字 即鰲城筆云」程度로 斷言하지 않고 있으며 白沙集
에도 確言은 없다.

四

弼雲臺의 글씨가 白沙의 것인지 아직 確認할 도리는 없으나 그 臺下
에서 白沙가 살고 있었다는 것과 一帶가 杏花로 有名했었다는 것은 다
음과 같은 記錄으로 알 수가 있다.

「萬曆二年甲戌公十九歲 公娶權夫人 即都元帥莊烈公樞之女」(白沙集附
錄卷之二年譜) 「萬曆三十年壬寅公四十七歲 前略——弼雲山 弼雲李某某
也 左相金命元曰 鄭澈雅喜李某所以有是作也 李某平生無一畝之宮 贅居
婦翁權樞家 以其在弼雲山背 意者以爲號也」(白沙集附錄卷之二年譜)
「弼雲臺 在城內仁王山下 李鰲城少時 贅寓於弼雲臺下 權都元帥家 自號
曰西雲 今石壁所鐫弼雲拾三字 即鰲城筆云 臺傍人家 多種花木 京城人
春日看花 必先數此地 而閩巷人 携酒賦詩 日日召集 俗稱其詩 曰弼雲臺
風月臺傍 又有六角峴 即仁王山麓也 與弼雲拾齊名」(漢京識略 名勝條)
「弼雲臺杏花 北屯桃花 與仁門外楊柳 天然荷花 三清蕩春臺水石 觴詠者
多集于此」(京都雜志卷之一)

「弼雲臺杏花 北屯桃花 與仁門外楊柳 其最勝處多集于此」(東國歲時記)
「京城花柳盛於三月 南山之蠶頭 北岳之弼雲洗心二臺 爲遊賞湊集之所
」(列陽歷時記)

이와 아울러 「仁王山 在白岳西 都城緣其上 一云弼雲山 天使所改命名」
(東國輿地備攷山川)에서 仁王山을 弼雲山이라고도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弼雲臺附近의 杏花는 前者 謙齋의 그림에서 볼 수 있음은 勿論 時代
와 季節을 달리한 方壺子の 弼雲臺는 依然 名勝으로 登場했으며 그것이
여러 記錄內容들과 들어맞는다는 것은 하나의 明確한 史料라는 것을 말
한다. 現在 刻字의 바른편 岩壁에는 비슷한 높이에 高宗代에 領相 橘山
李裕元(一八一四—一八八八)의 다음과 같은 七言詩가 새겨져 있다.

「我祖舊居後裔尋 蒼松石壁白雲深 遺風不盡百年久 父老衣冠古今亦」
 「癸酉月城李裕元題 白沙先生弼雲臺」
 (李謙魯氏藏)

居昌郡 農山里 및 上川里的 石造佛像

鄭 永 鎬

一九六二年 八月에 慶南 居昌郡內를 踏查했을 때 北上面 農山里와 渭川面 上川里에서 石佛 二軀를 調査한 바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一、北上面 農山里的 石佛立像

農山里部에서 작은 河川을 건너 俗稱「절골」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들어가면 林野가 있고 그속에 立佛 一軀가 現存하는데 여기에 關한 記錄은 보이지 않고 아직 調査되어 있지 않으나 이곳은 洞里에서 約一·五km 되는 近距離이어서 信徒들의 來往이 많다고 한다. 臺座와 光背가 具存되었으며 全高 3m의 巨像이나 周圍에 松林이 많이 우거진 까닭에 곧 찾기가 어렵다. 平平한 地臺에 南向한 立佛은 說法通印形의 如來像인데 光背面으로부터 三四cm의 厚刻이어서 거의 圓刻에 가깝다. 素髮의 頭頂에



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兩耳는 길게 늘어졌으며 三道가 있다. 相好는 眉眼에若干의 傷痕이 있고 鼻下部가 磨損되었으나 口唇에 微笑가 어리고 양볼이 豊麗하여 圓滿스럽고 慈悲가 흐른다. 양쪽

어깨와 가슴은 堂堂하고 雄健하며 通肩한 法衣는 胸前에서 圓弧를 그려고 兩膝에서는 同心橢圓形을 나타내었다. 양팔에 걸친 衣文은 길게 垂下되었으며 兩脚下部는 露出된 발 위까지 내려졌는데 左右로 펼쳐진 衣端의 彫刻手法이 注目되었다. 兩手는 共히 外掌하였고 五指가 若干씩 缺損되었다. 光背는 圓形舉身光으로서 頂上部와 右側의 肩上이 破損되었을 뿐 完全하며 周緣에는 火焰의 痕跡이 있다. 全面에 青苔가 甚하여 다른 彫飾은 分明치 않다. 두께 二〇cm의 光背와 立像이 一石으로 臺座에 套는 形式으로 되어 있는 手法은 他例에서도 볼 수 있는 바로 注目되었다. 臺座는 自然岩盤을 利用한 듯 하며 彫飾이 없는데 上面은 徑一m의 半圓으로 곱게 다듬고 양쪽발을 陽刻하였다. 石佛앞에는 一邊長 八〇cm의 拜禮石이 놓였는데 이것 또한 自然石을 上面만 平磨한 것이다. 立像各部의 均衡잡힌 몸매와 流麗한 衣紋이나 雄麗한 彫刻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統一新羅中期以後의 優作으로 推定되었다. 實測值는: 像 高 二六二cm 肩幅七〇cm 胸幅四〇cm 光背高約二八〇cm 廣幅 一五〇cm 下幅一〇〇cm이다.

二、渭川面 上川里的 石佛坐像

渭川國民學校에서 約二km 되는 上川里部落의 畚中에 現存하는 바 洞民들 말에 依하면 이一帶가 江南寺址라고 하며 그런故로 佛像도 世稱 江南佛이라고 불리운다는 데 이에 關해서는 記錄이 보이지 않는다. 現在는 下部가 埋沒되어 있어 全身을 알 수 없는 것이 遺憾이다. 光背는 厚十四cm의 板石으로서 圓形舉身光인데 無紋이며 여기에 厚四cm로 坐佛을 陽刻하였다. 膝部以下가 埋沒되어 手印이나 彫刻을 알 수 없다. 素髮의 頭頂에는 肉髻가 큼직하며 목에는 三道가 있다. 相好는 磨損이 甚하다. 法衣는 通肩하였는데 내려진 衣紋도 磨滅이 많이 되어 流麗하지 못하다. 年代는 各部의 形式化된 手法이나 光背와 佛像의 均整치 못한點으로 보아 麗代로 推定되었다. 實測值는: 坐像 現高 約一三〇cm 頭高 五七cm 肩幅 六五